지광국사탑, 1백년 前 '한글묵서' 첫 확인

국립문화재硏, 지광국사탑 도록 ·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1년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
탑신에 묵서… "한글 용례 자료"
보존처리 · 조사연구 등도 수록돼
"석조문화재 원형복원 연구 성과"



지광국사탑의 유리건판 사진들로, 모두 1911년 촬영됐다. 사진 가장 왼쪽은 명동 무라카미 병원의 지광국사탑의 모습. 사진 가운데와 오른쪽은 탑신 남쪽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100년 전 한글 묵서가 확인된다.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히는 지광국사탑의 복원 · 보존 과정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도록과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광국사탑에 한글 묵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에 대한 보존처리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와 역사적 의의를 사진과 함께 실은 도록을 발간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시대 국사(國師)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광국사탑은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며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국권 침탈 직후 1911년 일본인에 의해 국외로 반출됐다가 반환됐다. 한국전쟁 당시 포탄의 피해를 보았고, 10여 차례의 해체와 이건(移建)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일부 상실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부터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탑을 해체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과 보고서는 보존과 조사연구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결과물들이다.

도록 〈고려(高麗) 미(美) · 상(想), '지광국사탑'을 보다〉는 장엄한 조각과 문양을 통해 밝혀낸 지광국사탑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상징 등을 수록했다. 도록 속에는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 이후, 제대로 촬영되지 못했던 탑의 세부와 해체된 부재들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촬영한 사진들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도록에는 한글이 적힌 지광국사탑의 묵서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탑 복원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몇 장의 유리건판(필름 이전에 사용된 사진 저장물)을 참고하던 중 발견한 이 한글 묵서에는 1911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인 '긔묘, 여긔서' 등이 남아 있다. 이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한글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묵서의 판독과 자문을 맡은 최연식 동국대 교수와 허재영 단국대 교수는 "묵서로 기록된 간지와 연호를 살펴보면, 1879년(긔묘)부터 1905년(광무9년)까지 기록된 것으로, 원주 법천사 폐사지를 지나던 근방(원주 · 여주 · 충주)의 인물들이 지광국사탑에 묵서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묵서들은 지광국사탑이 원주 법천사지에서 반출되기 전인 1911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며, 근대 한글의 용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Ⅱ〉는 2017년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존처리 · 조사연구 · 학술연구 성과 등을 수록했다. 1957년 수리에 사용된 시멘트에 의한 손상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석했고, 시멘트 제거 이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D 스캔 ·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형제작 등 3D 콘텐츠로 구축한 자료도 담았다.

또한,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무기질 조성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새롭게 개발한 무기질 조성물은 탑의 결실부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기존 결합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유기질 성질을 혼합한 것으로 특허 추진을 계획 중"이라며 "지광국사탑 보존을 위한 과학적 보존처리와 연구 성과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와 도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

문화재청 2월 28일까지 접수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이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조상기)는 "2월 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굴조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문화재청의 학술발굴조사 사업 중 하나다.

올해 공모는 △주요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사기관에게는 최대 1억 7,000만원의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 공개 설명회를 통해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42)524-9262

신성민 기자

디지털 인문학, 불교에 어떻게 적용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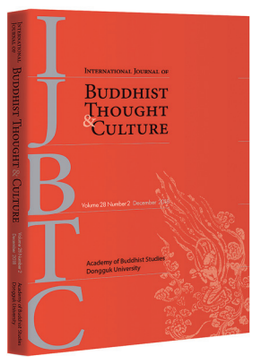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28권 2호 발행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가 어떻게 접목돼 연구되고 있는 지를 살필 수 있는 국제 학술지가 발간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28권, 2호를 지난해 연말 발간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국내 · 국제 주요 불교학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IJBTC의 이번 호에는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Digital Humanities and Buddhism)'를 주제로 특집 논문을 비롯해 연구논문, 서평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하버드대 · 템플대 · 뉴욕주립대 · 시드니대 · 뮌헨대 · 하나조노대 소속 대표연구자로서 국제적 다양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이다.

특집인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에는 △도널드 스털젼(하버드대)의 '중국불교문헌의 문자인식(OCR)' △마르쿠스 빙겐하이머(미국 템플대)의 '중국불교사에서 누가 중심(central)인가- 사회관계망적 접근' △박보람(동국대)의 '불교 화엄 문헌 분석에서 N-grams과 SVM 활용 연구' △모로 시케키(하나조노대)의 '현존하지 않는 불교 사원의 3DCG 시각화에 대한 고찰' 등 4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세계 유명 대학 불교학자들 참여
디지털 기술 · 불교학 적용 살펴
기고 연구논문 · 서평 등도 '눈길'

연구논문으로는 △G.A.소마라뜨네(홍콩대)의 '출생 · 노화 · 죽음: 초기불교의 3가지 실존적 고통' △호 처우휘(시드니대)의 '문수보살의 도상학적 변천과 의례의 정체성' △샤오 유에(붓쿄대)의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淸淨平等覺經)의 24서원에 대한 비판적 역주' △조지 할키아스(홍콩태)의 '키옌테 노르부의 영화 '여행자와 마술사'의 불교적 요소' 등이 수록됐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불교학 연구서를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론한 2편의 서평들도 살펴볼만 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IJBTC〉에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문학 연구가 활발해진 요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불교를 어떻게 시각화 할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 논문들이 게재됐다"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불교 연구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JBTC〉는 국내 유일 영문 불교학 전문지로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 브링엄영대 교수가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다.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며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연구' 제18집 논문 공모

동국대 경주 오는 31일 마감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성철)이 발행하는 〈불교문화연구〉가 논문 공모한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매년 1회 발간하는 일반학술지 〈불교문화연구〉 제18집 게재 논문을 오는 1월 31일까지 공모한다.

불교 관련 학술논문의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에 따라 각주와 참고문헌을 작성하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150매 분량으로 투고자 이름, 소속, 휴대전화를 명기해 메일(bulmunyeon@dongguk.ac.kr)로 응모 가능하다. (054)770-2506

신성민 기자

